

2000억 '농식품 펀드' 조성... 기술개발 등 농업 생산성 제고

농식품부

모태기금 출자전략 협의회 개최
韓 농가와 상생기업에 집중 투자
공적 영역서 투자 인프라 강화도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오후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모태펀드) 출자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와 기업·지자체 등의 민간자금을 합쳐 올해 총 2000억 원대 규모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 모태펀드란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재정과 기금의 출자를 받아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한 농식품 펀드를 민간인 투자운용사(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우수한 농식품 사업체(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사업자 등)를 선별해 투자하게 된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투자조합이 함께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투자조합이 나눠 갖는다.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주 관계가 성립된다. 또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함께 나눈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해 7개 주요 자(子)펀드 운용사 대표(전체 1조6000억 원 펀드 운용), 벤처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모태펀드 운용실적을 공유했다. 이어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자펀드는 누적 기준 1조8000억 원 결성했으며 1조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다. 또 청산수익률(IRR) 8.5% 등을 기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정부와 투자업계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모태펀드 출자 방향 등을 투자업계 등 민간과 조율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출범하고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올해 2000억 원 이상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해, 기술 개발 등 농업 생산

성 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 농가와 상생하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에 원활하게 유입되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전제조건인 산업·기업 투자정보 분석 기능(애널리스트)을 보완하는 등 공적 영역에서 투자 기반(인프라)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동향·우수기업 투자보고서를 발행하고,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등을 운영하게 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출자전략협의회를 통해 투자업계 등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농식품 산업과 투자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생태계 파괴 위험 '유입주의 생물' 150종

환경부, 외래생물 유입 사전관리 강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V'를 발간해 2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외래생물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한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해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선정 대상 종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2)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3)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4)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

은 종 5)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등이다.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를 판정한다.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 IV' 자료집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업무 참고자료,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V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227조 '역대 최대'

통계청, 12월·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모바일 쇼핑 167조, 전년비 7% ↑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연간 기준으로 22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인 20조 원대에 달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인 데다 해외 직구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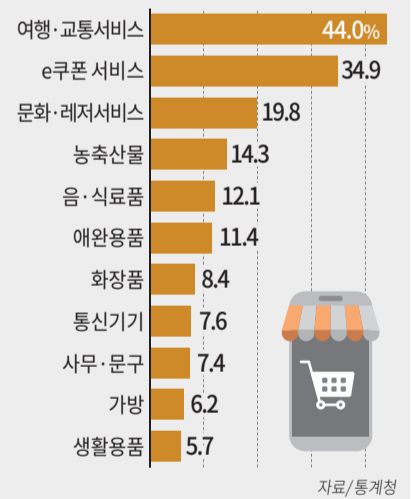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34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3% 늘었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액수이다.

이 중 모바일을 통한 쇼핑 거래액은 167조8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전체 모바일 쇼핑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73% 넘게 차지했다. 상품군별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전년보다 44.0% 늘어난 24조912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증가폭도 상품군 중 가장 컸다. 음·식료품은 12.1% 늘어난 29조8690억 원이었고, e-쿠폰서비스는 34.9% 증가한 9조8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화 및 레저서비스는 2조8834억 원으로 19.8%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4.6% 감소한 8조7001억 원이었다. 코로나19 때 재택근무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이후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액 구성 비중으로는 음·식료품(13.1%)이 가장 컸고, 음식서비스(11.6%), 여행 및 교통서비스(10.6%)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상품

온라인 쇼핑 주요품목 증감



을 구매하는 흐름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전년보다 26.9% 늘어난 6조75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 미국(-7.3%) 등에서 감소했지만 중국(121.2%), 일본(11.0%) 등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100% 넘는 증가율을 보였는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쇼핑 앱이 강세를 보이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작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3574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7.7%(1조4598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21.8%), 이쿠폰서비스(35.7%), 음·식료품(9.9%) 등의 증가폭이 컸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4%), 음식서비스(11.9%), 여행 및 교통서비스(1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EU 공급망 실사... 韓기업 부담 최소화 당부

기재부, 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
재정건전성 조화 등 공통 이슈 대응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 정책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EU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EU 집행위원회)에서 제11차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2010년 5월 맺은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비롯해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당부했다. 한-EU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관련해,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우리 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했다.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고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고용상황이 호

전되고 소비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설 제수용품, 우수 전통시장서 구매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 10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일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내 각지 전통시장 10개소를 공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설 명절 소

비자들의 선물·제수용품 구매를 돕기 위해 이들 시장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대표시장은 ▲(서울)까치산시장 ▲(경기)군포 산본시장 ▲(강원)정선아리랑시장 ▲(충북)청주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중앙시장 ▲(전북)군산공설시장 ▲(전

남)광양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 10곳이다.

농관원은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2013년부터 10년간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시상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